

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늘 품고 있었던 생피에르는 이렇듯 『폴과 비르지니』를 통해 온갖 사회악이 추방되고, 인간 본성에 부합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윤택한 집단생활의 가능성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종래의 사변적인 모델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현실의 섬 안에 작은 낙원과도 같은 또 다른 섬을 상상해냄으로써 자신의 오랜 동경이 들어설 자리를 찾아낸다. 경작을 필요로 하는 땅, 주인이든 노예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노동, 노동이 결실을 맺는 공간, 자물쇠 없는 동일한 집들, 신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소박한 옷, 풍부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외국의 문물 없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장과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인간 본성이 삭제된 비현실적인 공간에 있다기보다, 가족 미시사회의 모델을 통해 작고 근면한 생활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는, 보다 겸손한 이상에 있다. 물론 이 이상에는 자연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루소식 자연주의가 있다. 우리 인간은 최초로 태어났을 때 순결한 상태였는데 문명에 의해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됐으니, 이를 회복하자는 식의 본연주의적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피에르는 이 이상적 공동체의 행복한 결말보다는 차라리 그 허망한 실패에 본인의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자연과 덕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회에 강력한 비판을 가